

☉ 교회목표 ☉

- 1. 천국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담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권(權)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권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culchurch.or.kr>

## 직능별 선교회 출발한다

### - 학원 · 의료 · 실업인 선교회 -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에서는 교회 설립초 부터 가동되어 오던 직능별 선교회가 사정상 정상화 되지 못했으나 출발의 도약을 위해 오는 11월 4일(토) 오후 5시 총회를 갖기로 했다.

장 - 안인호 집사, 그리고 학원 선교회(준비위원장 - 홍성주 집사)는 각각 총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사명자 대회 기간중 복음증거의 사명을 받은 이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 2001년도 교회일꾼 임명식

### - 12월 첫주부터 -

교회의 실질적 일꾼을 뽑는 2001년 서리집사 추천 일정이 발표되었다. 11월 1일(수) 교역자 추천 11월 8일(수) 당회 추천을 받은이들에게 17일(금) 또는 18일(토) 양일중 택일하여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24일(금) 또는 25일(토)에 당회의 면접을 거쳐 26일 당회 인준을 받고 12월 첫째 주일에 임명을 받는다.

12월 2째주(20일)에는 각 부 찬양대원의 임명이 있다. 그리고 13일(수)에는 호산나, 시온 찬양대원의 임명이 있게 된다. 교사로 임명 받을 이들의 특별교육이 12월 첫째주부터 새벽기도회 후 있게 된다. 교사경력 2년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는 7시간, 2년 미만의 경력자는 15시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교사로 12월 17일(주일)에 임명을 받게 된다.

## \* \* \* 태신자 초청잔치

### - 11월 19일(주일) I, II, III부 예배시 -

사명자대회 마지막 주일이 될 11월 19일(주일)은 태신자 모셔 오기의 클라이막스가 된다.

이날 I, II, III부 예배에 모셔올 태신자 명단을 이미 제출하신 분은 본인들에게 구두로 초청을 한번 더 하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서신 초청장을 발송케 된다.

#### ◆ 11월 행사 일정

- 11.5 •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 정기제직회
- 11.18 • 진중세례식
- 11.19 • 추수감사 찬양예배
- 11.26 • 교회설립 9주년 기념일
- 추수감사(성찬식)
- 집사, 권사 임직식
- 사명자대회 승전감사의 날

**새 예배당**

## 입당 D-57

\*\*\*

물컵에 반이 남아있는 물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과와 반밖에 없다는 부정과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과에 속하기 때문에 새예배당 건축이 정한때에 완공되리라는 믿음뿐이다.

### ◇ 주간 사명자 대회 일정

행사	일시	주관	
기도일레이	매일(24시간)	전 성도	
다니엘 기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전 성도	
다락방 잃은양 찾기	10월 8일~11월 25일	각 다락방별	
태신자 초청의 날	11월 19일(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전도	노방전도	10월 29일(주일) I, II, III부 예배후 11월 5일(주일) I, II, III부 예배후	빌립, 도르가, 안드레, 루디아 베드로, 보바, 바울, 마리아, 아브라함
	거주지 및 친지전도	10월 8일~11월 25일	각 가정, 성도 전원
금요기도회	11월 3일(금) 오후 9시	5·6교구, 바울, 마리아, 권사회 호산나	
70인 전도대	11월 4일(토) 오후 3시	5·6교구 안드레, 루디아	

## 성경암송대회 임박

마태복음 5~7장(산상보훈)의 말씀을 암송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임박하였다.

11월 5일(주일) 각 부서별 예선을 거쳐 11월 10일(금) 본선 및 결선을 하게 된다. 12일(주일) 시상 및 상위 입상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정확도, 태도 그리고 청중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참전자는 오늘 중으로 각 부서별 등록을 해야 한다.



# 언어 윤리

성경 : 야고보서 3장 1절 ~ 12절



이중운 목사

\*\*\*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

선생은 말로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선생은 결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가슴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고,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말로서 성도를 가르칩니다. 다락방장도 가르치는 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다락방장이 스스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결코 쉬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말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생활에 윤리가 있듯이 말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언어 횡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말로서 뼈가 부러지도록 상대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고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삼가 해야 합니다.

## 거듭나지 못한 자의 언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동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동물 같은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언어 역시 동물의 수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혀를 잘 조종하지 못하면 그 인격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이 혀를 잘 조종해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므로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눈이 멀었나...”, 이런 말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것에 대해 모독하고 교회와 성직을 모독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헛 맹세 하는 것, 이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히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다락방장은 다락방 모임에서 대화의 즐거움의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락방장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 1. 하나님을 대항하는 언어

뱀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뱀이 거짓말로 아담을 꼬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가장 큰 병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행동입니다.

## 2. 이웃을 대항하는 언어

교회는 잘못을 폭로시키는 곳이 아니라 가려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 없는 자처럼 인정을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의

흠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뿐만 아니라 없는 말까지 해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남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 3. 자신을 대항하는 언어

우리는 자신을 대항하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저주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는 것은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절망의 말, 자기 자랑의 말, 자기 교만의 말,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6절). 야고보 사도는 이같은 사람의 혀를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의 실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태웁니다. 말을 한 번 잘못하면 형제간에 이우간에 국가간에 대적하게 되며 세상의 모든 악은 혀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지 못한 자의 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해롭게 하며 자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락방장으로 지도력을 행사해야 할 지도자는 특히 말을 조심하고 남에게도 말을 조심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이 말을 많이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론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알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어의 윤리를 잘 지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습관을 갖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김광신 장로(1교구)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백성들은 낡은 정치, 묵은 정치를 싫어 한다. 더구나 새천년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영역에 새 바람이 불고 있고 거품이긴 하지만 벤처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세기를 눈앞에 그리면서 정치 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 영역에 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본질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수용하는 수단들은 계속 변화의 용기로 바뀌어야 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의 편집자가 바뀌어 새 포도주의 맛을 내기로 한 것 자체가 당연지사이다. 고집을 부리거나 아집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를 거절할 때 성도들의 심장은 터질 것이고 교회를 대변할 순

례자의 위치가 전혀 요지부동이어서 변화를 말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것이니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잘 참아 견디어 오셨고 용서와 관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으니 순례자의 모든 공로는 성도들 것이다. 주일마다 배포되는 순례자이건만 무슨 새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자세히 읽으려고 하는지 감동적이지 아닐 수 없다. 교회문을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순례자를 찾아서 탐험해 나가는 그 정성을 보아서라도 더 잘 만들어야 하는데 송구스러울 뿐이고 이제와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

정성껏 써내신 글을 편집자들 마음대로 고치고 줄여서 내보내도 불평한번 못 하시는데 그 마음씨를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원고 한번 받아 내려면 젓먹던 힘까지 다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주일도 원고 때문에 백지상태로 순례자가 발간된 전례가 없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순례자의 나이가 9살이 되었고 성숙을 향해 올라가는 시점에 이르렀으니 이 책임을 맡게 될 후임자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되었고 반대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대다가 자랑스러운 실적없이 빈약한 존재로 끝내야 하는 나를 읽으면서 하나님앞에 죄송하고 교회에 부끄럽고 모든 성도들 뵈기 부끄러워 숨어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질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편집자 자리에서 내려 앉게 되어 감사할 뿐이다.

## ✉ 편지왔습니다!

### 정금같이 연단된 군사되라...

황유석(대학부)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3일 여러분과 하나님앞에서 해군에 파송된 여러분의 아들이자 형제 그리고 군선교사 황 유석입니다.

그당시 진해의 벚꽃을 보며 훈련소생활을 했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저는 훈련병이 아닌 해군 일등수병이 되었고 현재 평택 제 2함대기지에서 실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사령부가 인천에서 옮겨 온지 채 일년도 되지않아 너무 깨끗하고 황량하기까지한 이곳에서 저는 경비중대에 소속되어있고 제 임무는 사령관 및 장성들의 공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의장대기수로서 해군기를 드는 것입니다.

8개월의 그리 길지않은 군생활동안 정말 다양하고 극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군이 좋아서 자원입대한 저에게 웬만한 병장들보다 다양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군선교사로 파송된것에 대해선 말씀을 가르치고 전우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은 계계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특별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군생활 정도는 무리없이 할수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부족한 저를 좀더 온전케하시려고 생활전반에 걸친 여러훈련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드러나있는 생활속에서 입대전에 누군가 가르쳐주는 귀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모든 일당들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입니다.

앞으로 어떤일이 생길수도 또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을수도 있는 곳

에 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목표는 한가지, 저를 군사로 부르신이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뜻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싸움과 전도자의 역할과 주와 함께 시험 받을것과 또 행여 있을지 모를 침체의 순간 속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위해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 성령의 열매를 넣은 비빔밥 맛

김규희 집사(6교구)

어느 화가가 그린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푸른 가을을 잘 표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 아래 6교구 식구들이 모였다.

자상함과 사랑이 넘치는 노송성 장로님 지붕아래에 모였다.

찬양과 기도, 환담의 시간 속에서 나는 늘 편안함과 반가움을 주는 마치 친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듯 착각을 했다. 내 할머니요, 어머니요, 언니같은 그런 6교구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교회와는 좀(?) 떨어진 교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 이겠는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6교구를 더 잘 설명하고, 더 멋진 찬양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준비 했다. 설령 실수 하면 어땀가. 우리 6교구가 하나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화평하며, 인내를 갖고 열매 맺는 사랑의 6교구인데, 저녁 메뉴는 비빔밥, 성령의 열매를 모두 넣어 짹짹 비벼 맛있게 먹었다. 먼 곳을 마다않고 달려오신 고경선 목사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곧 이사할 새 성전을 마음에 그리며마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들의 장학금이 key board를 낳다

백정순 집사(10교구)

살아 계셔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은 제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으로 감히 말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저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확실한 체험을 저 혼자 느낄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례자에 글을 올립니다.

상조회 반주자로 임명받았을 때 부족한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자문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피택 권사라는 직분도 너무 과분한데... 무늬만 있는 권사가 되지 않을까? 등등

그러나 어느날 수요일 예배에 중윤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용기를 얻어 겸손히 받아들이며 노력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10월5일 오후 7:00 은혜속에 상조회 발대식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상조회 예배시 필요한 것은 키보드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분명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구입할 모든 여건이 허락치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중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올해 휴학계를 내고 시험준비중인 둘째 아들이 귀가해 저에게 장학증서와 100만원 수표 한 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두아들은 보훈가족이라 대학등록금이 보훈장학생으로 되어 있어 학교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을수 있지만 학교 규칙상 이종으로 장학금을 줄수 없어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휴학중인 제 아들을 불러서 장학재단중에 하나인 <김용숙장학회>에서 성적이 우수하므로 기마다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엄마의 깊은(?) 뜻을 모르는 이들은 오래된 옷만 입고 다니시지 마시고 "어머니 옷 사입으

세요"하며 제단엔 모처럼 효도한번 해보겠다는 자세였지만, 그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주신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의 키보드가격 이었습니다.

강박하고 매마른 저를 버리지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깨어서 일어나라"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들립니다.

정신적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조회 임원으로 열심을 다해 슬픔을 당한 가정마다 위로하며 소망이 될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 ■ 동정 ■

■ 박두호 장로(한성옥 집사)는 컴퓨터(Power Macintosh G4) 1대와 모니터(19인치)를 교회에 기증.

■ 이남호 장로(여옥기 권사)는 백미 80Kg을 교회식당에 기증.

## ■ 이사한 교우들 ■

■ 김성준 집사(김선영 집사)(10-8다락방)  
-길동 우성APT 101동 711호  
(429-2962)

■ 조정옥 집사(11-10다락방)  
-잠실본동 칼라하우스 402호  
(413-5882)

■ 신정순 집사(11-6다락방)  
-석촌동 한솔APT 106동 1503호  
(424-1070)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나점균 집사, 최근자 권사 가정

## ☑ 건축현장 방문팀

: 소망부 - 30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최현인 집사(1교구)

매주일마다 영의 양식은 1부예배로 만족하고 육의 양식을 쫓아 등산다니던 제가 지금은 성준경장로님의 권유로 2부 할렐루야 찬양대를 부부가 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8년 전이었습니다.

찬양실력이 거의 음치에 가까웠던 저는 막상 결심하고나니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찬양도 집사람과 꾸준히 연습을 하니 악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찬양드리면서 말씀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더 커졌고 덩달아 신앙도 자랐습니다. 길 잃고 헤메던 양떼들이 목자를 찾아 서울교회로 모인지만 9년만에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려하는 요즘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뿌듯함을 느낍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에 저희 할렐루야 찬

양대가 드 높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상상만 하여도 모세의 기적을 보는 듯 합니다.

화목한 모습으로 연습하고 은혜받으며 신앙 성장을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추천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음악지식도 쌓고 예배시작 직전의 목사님의 특별한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천년, 새 예배당 시대 서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와 간구로 이끄시는 대장 장로님, 부대장님, 지휘자 집사님, 반주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는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150명 찬양대 좌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